

제 129 호

성신 강림 대 축일

1975. 5. 18.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498)



“성신을 믿으며”

이 상 호 신부

우리는 성신을 믿습니다. 이 성신은 사랑의 신이시요 은총의 신이시며 진리의 신이시요 평화의 신이실뿐 아니라 활동의 신이시며 성화의 신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러가지 성신의 작용은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미래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성신은 처음부터 교회를 이끌어 왔고 신자들을 인도해 주셨으며, 인류 역사를 지배해 오셨습니다. 그전에도 오늘날 만큼 진리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아쉽고 그리운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공동체의 사랑은 말라버렸고, 이 지상의 평화는 소멸되 버렸으며 혼돈과 암흑의 세계가 닥쳐온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크메르와 월남과 라오스의 공산화는 온 인류를 놀라게 하고 실망케 했으며 동남아세아를 휘돌아치려는 공산세력의 위협은 약소국가들에게 공포와 불안과 초조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불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범죄가 많아진 것은 성신과 멀어진 증거요. 성신과 멀어진 것은 성신과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신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총을 고루 분배해 주시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질주의의 장벽, 지식의 교만, 기계문명의 인간비하, 배락과 안일의 부패상, 금력과 권력의 부조리, 인권의 유린 등 성신이 오시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너무도 많으며 인간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신이 오실길을 마련하고 문을 활짝 열어 놓읍시다. 2차 비티칸 공의회는 현대세계에 문을 활짝 열어놓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와 화해 사랑과 봉사, 대화와 일치를 통해 성신이 오실길을 빨리 열어놓읍시다. 천주교 신자들은 성신께 대해 너무도 무식하고 무관심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었을 때 “천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성신의 은혜”나 “성신의 뜻”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성신을 믿지 않고 성신과 멀어진 것을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신의 힘을 믿읍니다. 은총의 힘을 부린 합니다. 이 은총은 7성사와 기도뿐 아니라, 희생과 봉사활동과 고통 겸손과 용서를 통해 일상생활 전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신을 생활화 합시다. 이번엔 주교단에서 성신계대한 9일기도를 실시키로 한 것도 성신의 능력을 믿는데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 그리고 세계의 평화도 성신을 믿고 따르는데 달려 있습니다. 오소서 성신이어, 오셔서 온갖 죄악과 부정과 부조리를 몰아내시고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될. 의혹이 있는 곳에 진리를 어두움에 빛을.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소서. 아멘.

<신대인 본당 주임신부>

✽이 주일의 미사✽

가톨릭 기도서 P 309

(1) 개회식

□ **입당송** 주의 일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며, 만물을 보존하시니, 사람들의 말을 다 아시는도다. 알렐루야.

(2) 말씀의 전례

□ **제1독서** (사도행전 2:1-11 성서 p266)

성신을 가득히 받고 말하기 시작했다.
□ **증거송** ◎아웨님, 당신 얼굴을 보내시고/누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크시고 크시어라/내 허느 님 아해시여/주님이 하신 일이 많고도 많진마는/은 땅에 당신 조물 가득 차 있니이다.◎

□ **2독서** (고린토 전서 12:3b-7. 12-13 성서 p391)
우리는 모두 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 **성신송** 가 오소서 성신이어, 당신의 빛/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없는 이의 아버지, 은혜를 주시는 이/마음들의 빛이여, 가장 좋은 위로자/영혼의 기쁜 손님, 흐름 못한 안식이여/고된일에 쉬이여, 더위에 그늘이여/울음에 위안이여, 지복의 빛이시여/당신의 신자들의 마음속 채우소서/당신의 빛 없이는 사람은 아무것도/죄 아닌 것 없나니, 더러운 것 씻으소서/마른 것 물 주소서, 병든 것 낫주소서/굳은 것 굽히시고, 찬 것은 덤히시고/빛근 것 짙주소서, 당신을 믿는 자들/신자에게 일꾼 가지 은혜 내리 주소서/공포를 쌓는 덕을, 구원의 끝맺음을/무중 한 복 주소서.

□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소서 성신이어, 믿는 이들 마음 충만케 하시며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알렐루야.

□ **복음** (요한 20:19-23 성서 p259)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성신을 받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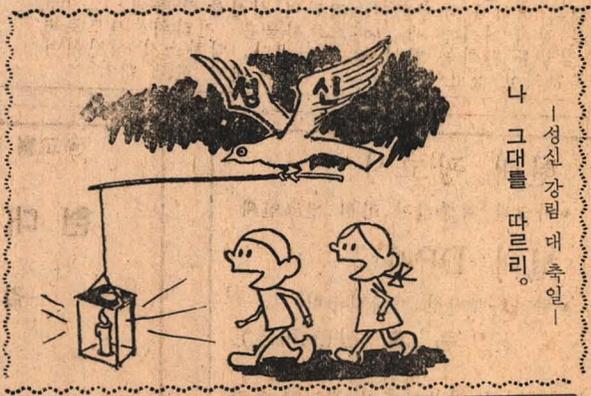
□ 신자들의 기도

1. 진리의 성신이어/이 암흑시대에/가장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에게 성신을 주시어 밝은 지혜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인간의 욕망으로 어두움을 방황하는 이들에게 평화로움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소서◎
3. 이 세상을 떠난 형제들에게 당신의 품안에서 편안함을 주소서◎

(3) 성찬의 전례

□ **봉헌** □ **성찬식**
□ **영성체송** 모두 성신으로 가득차, 하느님의 하신 큰 일들을 말하도다. 알렐루야.

순정이 산책



나
그대를 따르리.
— 성신 강림 대 축일 —



임하소서 성신이여

이 태 주 부제

어떤 나라에서 먼저 건국(建國) 기념일을 성대히 지냅니다. 성신이 강림하신 오늘을 곧 하느님 교회인 천주교회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예수께서 교회 창립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끝마치고, 성신강림날 이 교회를 유일한 참된 종교로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느님 백성의 이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일치에 바탕을 두고 모인 백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지기를 (에페4, 23) 원하신 그리스도는 사랑의 성신을 약속하셨고, 성부께 청하여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발하신 사랑의 성신. 그분은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친절과 선, 진실한 은유와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어 주시며, (갈라5, 22-23) 우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타득하게 하시어, 성부께서 조성하신 만물을 잘 쓰게 하시고, 성자의 구속공로를 얻어 입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신을 자신안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오로는 말했습니다. (로마 8, 9)

오늘날 사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사회는 풍족과 고갈이라는 양극성(兩極性)을 치달리면서 너무도 많은 부조리를 낳고 있으며,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쳐 진리와 정의가 꺾박받아 힘없이 쓰러지고, <현실>이라는 위력앞에서 많은 부정과 모순이, 그리고 비극과 나태가 그대로 무사통과(free pass)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불의는 분수를 모르고 날뛰며, 진리와 정의는 당신을 당한 채 흠뻑거리며, 뒷골목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둠을 비추는 광명, 우울과 실망의 썩어가는 갈증을 풀어 줄 사랑, 가진 박애와 고난을 이겨나갈 용기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약하고, 겁쟁이었던 사도들에게 불과같은 혀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성신은(사도2:1), 그들을 산을 옮길 수 있는 신앙을 지닌자로 만들어 주셨고, 여론과 조소에 무력하였던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불타게 하셨던 성신은, 또한 오늘의 교회안에서도 여러가지 은혜로써 생명과 용기와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류와 봉사로 일치된 공동체의 일원인 모든 그리스도자는 소명에 의해 부여된 자리에서, 더욱이 사랑의 공동체안에서 중요한 것은 자리의 위치가 아니고 그 자리를 얼마나 완전하게 지키느냐가 문제이기요,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진리의 성신을 마음에 모시고 현실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자들은 진리의 사도로써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임하소서 성신이여 위로자이신 성신이여. <광주 대진 신학 대학>

□본당 연혁 소개□



중앙성당의 역사

전주교구 주교좌 성당인 중앙성당이 축성된 것은 1956년 8월 6일이었다. 사실 중앙성당은 전동성당에서 교우들의 증가로 1947년, 현재의 대한 여객 자리에 대동성당이라는 이름으로 독립되어 나왔을 때 부터가 그 시작이다. 그간 교우들은 계속 증가하여 덕진, 복자, 노송동성당을 신설하여 본당 관할이 바뀌었다.

<대동 성당 연혁>

초대	김재덕 (아우구스띠노)	신부	1947년	11월	부임
2대	이대권 (바오로)	"	1951년	5월	"
3대	김종택 (요셉)	"	1952년	5월	"

<중앙 성당 연혁>

	주 임 신 부	부임월	본 사 도 회 장
초대	박성운 (베네딕도)	1954. 5	정진갑
2대	이약술 (요셉)	1958. 1	박노정
3대	김재덕 (아우구스띠노)	1961. 4	정진갑
4대	김이환 (스티파노)	1962. 9	김중순
5대	김재덕 (아우구스띠노)	1963. 1	김중순
6대	박영규 (바르나바)	1966. 7	김중순
7대	안복진 (요셉)	1969.12	김중순, 이복석
8대	이대권 (바오로)	1974. 5	김영진

그간 안복진 신부님을 비롯 범석규(교구 사무국장), 김환철(전동), 이태규(사망), 고경훈(군중), 오현택(고창), 서용복(군중), 김정원(수류), 김병운(군중), 석해천(멕시코), 이병호(광주 대진신대), 김용태(무주), 김진소(화산). 신부님등 13분의 사제들이 보좌신부님으로 수고했었다.

본당 신부님들 가운데에는 김재덕 주교님을 비롯 김종택 부주교, 박성운(군산 중동), 김이환(함열), 안복진(금산)신부님이 교구내에서 사목활동에 애쓰시며 박영규 신부님은 독일에서, 그리고 이약술 신부님께서는 1961년 3월에 중앙성당에서 선종하셨다.

1955년에 착공된 성당 신축(박성운 신부)을 비롯하여 사제관(이약술 신부), 수녀원, 사제관 및 강당 신축(김재덕 주교), 본당 사무실, 성모상, 상가신축, 신용조합 창립, 성바오로서원 유치(박영규 신부), 성당 개수 및 의자개설, 도서실 설치, 변소 신축, 상가 3층에 주력신축(안복진 신부), 유치원 신설(이대권 신부) 등 중요한 사업을 통하여 오늘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

현대 광고사

*아크릴·각종간판·아취·셀크인쇄

현대 DP사

*칼라후백사진·카메라수리

송 흥 설(토마스)

전화 ② 9431

삼남극장과 전복신문사 베거리 중간

◎교형 여러분의 집◎

현대 사진관

김 낙 준(요한)

오거리 한전 옆

전화 ② 6289

K.S사차료 페인트 대리점

반도카슈 대리점

포구제로 각종합지

실크 슬입벽지 파이렉스

대 동 지 를 상 사

전주시 풍남동 1가17번지

전화 ② 5986

임 정 원 (도민교)

□ 성도성월 □

이 5월에

김 마리아 수녀

성모 마리아
당신 사랑이 불붙는 조록으로
하늘과 땅을 새롭게 물드리는
축복의 달입니다.

그 옛적
에와의 불순명이 묶어 놓은 매듭을
당신은 순명으로 풀고
에와의 불신이 맺어 놓은 모든것을
당신은 믿음으로
에와의 죽음을
당신은 생명으로
이토록 겁은 죽음의 허물을 벗고
다시 소생한 생명을 깨닫는 날
우리의 피는 꿈꾸는 바다 처럼
설레이기 시작 합니다.

왜 우린 살고 싶은가
왜 우린 사랑하고 싶은가
이 솟구치는 눈물
성모 마리아
이 5월에
당신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작은 이름없는 들꽃의 미소로
가장 순결한 마음 전체로
하늘 땅 새롭게 물드는 환희의 소리로
성모 마리아
오늘 당신께서 열어 주신
하늘 문 앞에
모두 마음 가득한 향훈은
당신 티없는 동정의 겸손과 헌신으로
쏟아 부으신 공경이 됩니다.

이 5월에
아들이신 주님에게 우리위해 빌으소서
오늘도 내일도
빌어 주시는 영원한 어머니
여기 인류의 열망은
천상 에루살렘 완성의 도정에 서서
두손 합장하며 기도 드리웁니다.

당신이 원하시고 일깨우신
알뜰한 발현은
긴장된 인류에
말씀의 평화요
두개 갈라진 이 강토의 통일로
하느님 나라 승리 노래 할
길 진리 생명의 예수님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이것이 습니다.

성 바오로 여자수도회

요십이 (95)

사도회장 여러분! 각본당에서
윤정이 제작비를 50여만원이나
채납하여 애로가 많고

그러기하면 무주어느공소교우는
2천원은 윤정이 제작비에 보태
쓰라고 보내 주셨고

채납한본당의 사도회장은
각성 해야되고 우리본당이
채납한이유는

채납액이 백만원쯤될때
한꺼번에 주어야 인색소도
목들을 만질수있을것같아서



*** 결 혼 ***

이 상범씨 장남
이 강배(베드루)군
장 현국씨 삼녀
장 옥경(아네스)양
주례: 중앙 이 대권선부님
시간: 1975. 5. 18일 12시
장소: 진주 중앙 천주교회

개점 1주년 환원판매

삼성 T.V 대리점
삼성 전주 센터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절
박 영 옥(누시아)
전주중앙입구 전화 ⑤ 5893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 지 사 진 관 (2층)
이 상 범 (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⑤ 6544

※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 조제약 전문 —
김 을 태 (베드로)
육교길 중앙 시장통
(전화 ⑤ 4577)

※ 집단장 청부. 문의 환영 ※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료. 방수액. 흑판등〉
전화 ⑤ 0876 김 데레사
소방서 북편. 결핵협회 옆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전주 교구 성신 강림절 9일 기도 (전주교구 제 75-13호 공문, 75년 5월 6일자 참조)

- (1) 기간 : 5월 12일(월) - 20일(화)
- (2) 순서 : ① 성체 현시 (성체 노래, 분향) ② 성경봉독
- ③ 강론(주제: 인간 존엄성, 형제애, 인간 공동체-상호 연대성, 사회정의, 교회의 일치)
- ④ 신자들의 기도 ⑤ 성체 강복 ⑥ 로사리오의 기도 ⑦ 평화의 기도 (성년 기도문)
- ⑧ 뱃짐승가 (성모께 대한 성가)

2. 성체회 수녀원 증신 허위식 : 1975. 5. 29(목) 오전 11시 중앙성당에서. 많은 분들의 참석과 더불어 축복과 기구로써 빛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J.O.C 훈련회 개최 : 교구 J.O.C 훈련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 1975년 5월 17일-18일. 장소 : 소양면 송광사역 자연의집에서

4.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 : 1975. 6. 2(월) - 4(수) <2박3일>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회비 : 2,500원

5. 4지구 일일 분당 신부님 제 실시 5월 25일 주일 하루. 이유 : 사목 현장 교육 목적 하에 오기순 신부님(복자) → 덕진 이대권 신부님(중앙) → 복자 김환철신부님(전동) → 노송동 박종근 신부님(덕진) → 전동 김영일 신부님(서학) → 중앙 함승천신부님(노송) → 서학동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②3874 사도 회장 김영진

1. 견진성사 집행 : 오늘 공식 미사시
2. 성모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3. 마돈나 꾸리아 월례회 : 오후 2시
4. 신용조합 월례회 : 20일(화) 밤 8시 덕기에식당
5. 특별 교육 : 일일 적금 실시에 대한 안내 (참석자 경품 증정)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훈

1. 성도의 밤 행사 : 다음주 저녁 미사후(초 지참)
2. 교미씨움 회합 : 오늘 오후 1시30분, 전동에서
3. 교무금 납부 요망 분당 운영에 고통 많음
◎ 지난 주 성미 3말 8되, 누계 389말 5되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철

1. 부녀회 및 애령회 간부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2. 성 안또니오 재속 형제회 월례회 : 다음주
3. 교무금 주일금 봉헌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중앙 성당 : 25,000원 복자성당 : 14,200원
전동 " : 63,350원 서학동 " : 1,000원
황요셉 : 5만원 장 가스칼, 고여옥, 이름없이 (중앙) 각 5천원, 손 보스교 3,200원
누계 : 171,750원 누계 : 2,979,860원
◎ 신축 성미 : 1말 누계 257말

(서학동) 전화 ②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6월 1일 영세 예비자를 위한 교리
매주 화, 수, 금, 오후 8시30분
2. 중, 고 학생 소풍 : 다음주
3. 성당 담장, 정문을 새로 단장 하였으나 아직 적극 협조 바람
4. 중 고 학생 교리 : 매주 오전 9시
5. 반회합 하절동안 임시 중단
6. 신용 조합 이사회 : 공식 미사후

(덕진) 전화 ②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특별 강론 : 노송 주임 함승천 신부님
2. 가산 방문 : 5. 16일 부터 (동산, 중천, 금암, 덕진 순위)
3. 교무금 자진 납부 요망 : 우리 본당은 우리 손으로
4. 보미사단 아동 모집 : 국민 4년 이상 중 2년 이하.
나 춘성 학사님께 직접 접수 요망
5. 신용 조합 월례회 : 공식 미사후
◎ 애령회 성미 성금 : <누계> 성금 : 3,640원
성미 : 11되 2홉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사도 회장 이현재

1. 견진 일자 : 5월 24일 저녁 8시
교리시간 : 19-23일, 신청서는 사무실에서 교부
2. 오늘 애령회 특별 헌금 있음
◎ 61주년 성미 : 백미 5말 (41세대) 누계 : 6가마

금주의 숭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유 야고버(공수)

동문 사거리 스포츠 당구장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부신태인읍	전교 회장 경질 학생회 체육대회 성도의 밤 행사	6,020원 15,870원 4,395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 동	주일 학교 춘계 아동 소풍 신용조합 월례회 새로 영세하신 자매들께 축하드립니다	33,260원 36,230원 3,845원
		축 영세	원			제 4 지구	중 앙 노송동 덕진 서학동 전
제 2 지구	대 윤명동합	모범 신자 표창 사도회 임시총회 주일 학교 소풍		제 5 지구	남 무원주계안창	춘향제관계로 임시 미사시간 변경 반사회 공소 순방	9,680원 5,009원 3,515원
제 3 지구	고 금여 산산산	주일 학교 교사 연석 회의 성우회 월례회	4,120원 10,040원				